

광주공항 소음 손배소송 주민 승소 가능성 커졌다

대구 항공기 소음 369억원 배상 판결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최근 잇따라 승소하고 있어 현재 소음피해 전문감정이 진행중인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 주민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대구공항 인근 주민 2만9천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에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369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한도를 80웨클(WECPNL)로 하고 1인당 보상금액(70개월 기준)을 ▲80~90웨클 210만원 ▲90~94웨클 315만원 ▲95~100웨클 420만원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기소음도 80웨클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중 30~35% 정도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2일 충북 청주시 오근장동, 청원군 내수읍·북이면 등에 거주하는 주민 7천

4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2004년에는 전북 군산 미군 공군기지 인근 주민 1천452명과 2006년 대구 북구 검단동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이처럼 법원이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지난 2004년 5월 첫 소송이 제기된 뒤 4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광주와 서울지법에서 진행중인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8건. 2004년 5월 강모씨 등 782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05년 3건, 2006년 2건, 2007년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7건은 광주지법에서, 나머지 1건은 서울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신청자(원고)는 광주가 2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된다.

만6천987명, 서울지법이 3만1천25명으로 무려 5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총배상청구액은 환경영향평가와 피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개개인의 전입 시기와 거주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모두 제6민사부에 배당하는 한편 조만간 소음피해 감정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 10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 광주공항 소음도가 86웨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항 주변인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7일 광주시 북구 문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운동 실천대회'에 참가한 이 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사)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개 주의
구름 많겠고, 한 두차례 비가 내리겠다.

9월 18일
(음 8월 19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22~30℃
주요	구름 많음	22~28℃
포수	구름 많고 비	23~26℃
여안	구름 많고 비	22~27℃
완구	구름 많음	19~30℃
해장	구름 많고 비	21~28℃
고	구름 많고 비	21~27℃
남	구름 많음	19~30℃
울	구름 많고 비	21~28℃
흥	구름 많고 비	21~28℃
천	구름 많음	19~30℃
광	구름 많음	20~30℃
도	구름 많음	20~29℃
주	구름 조금	20~32℃
원	구름 조금	18~31℃
남	구름 많음	21~26℃
해	구름 많음	21~26℃
상	구름 많음	21~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만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3:45 썰물 < 08:56
16:18 21:22
여수 밀물 < 10:48 썰물 < 04:21
22:52 16:43

▲해돋이 06:17 ▲해질 18:35 ▲달돋이 19:56 ▲달질 09:11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씨						
최저/최고	22/30	21/30	20/29	20/30	20/29	19/28

가을 더위 다음주까지 계속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량 지표면 데워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초가을 무더위는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화순의 낮 최고기온이 한때 34.5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뽕벌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최고기온이 32.3도인 것을 비롯, ▲함평 33.4도 ▲구례 32.6도 ▲장성 32.5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섰다. 30도가 넘는 더위는 1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7일 32.5도를 기록한 뒤 비가 내렸던 지난 15일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한낮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맑은 날씨 탓에 강한 일사량이 지표면을 데우면서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일에도 광주·순천 30도, 나주·함평 31도, 목포 28도 등으로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의 낮 최고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다음주 중반까지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낮 최고기온은 2~3도 가량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낮에는 여전히 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올 수능 광주·전남 34,287명 응시

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광주주는 다소 줄고 전남은 늘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마감 결과 재학생 1만4천748명, 졸업생 3천17명, 검정고시 등 기타 481명 등 총 1만8천246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응시자 1만8천317명 대비 71명 줄 것이다. 졸업생 응시자와 기타 응시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4명, 67명 늘었지만 재학생 응시자가 172명 줄어 총 응시자 수도 감소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전남은 재학생 1만4천259명, 졸업생 1천543명, 검정고시 등 기타 239명 등 총 1만6천441명으로 지난해 1만5천993명에 비해 448명 늘었다. 재학생이 142명 줄었지만 졸업생과 기타 응시자가 각각 141명, 4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수능은 11월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12월10일 성적통지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수시2학기 모집은 12월9일까지, 정시모집은 12월18~24일까지 진행된다. /최재호·정상필 기자 lion@

“살인과 무기징역 사이 형벌 마련해야”

광주고법, 연쇄살인 보성 어부 위헌심판 신청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 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적

응되는 형법 제41조 중 ▲'사형, 징역'의 부분 ▲'무기징고 ▲유기징역 ▲유기징고 부분을 제외한 형법 제42조와 형법 제72조 1항 등 5개 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를 대한 심판을 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에 대체 형벌, 사형제도의 중대성과 심각성,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근거를 국민에게 납득시킨다면 폐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될 것"이라며

서도 "사형과 무기징역 형 사이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만큼 많은 간극이 존재해 대체 형벌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예방 및 병형의 처벌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대하여 보더라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형태 무기징역형이 효과적"이라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형벌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 다리 촬영' 대전지법선 유죄 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께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필뉴스

경찰 '답장차' 철망 사라진다

쇠파이프 충격 견디는 창문 부착기로

유리창 위에 철망을 덧씌워 '답장차'로 통하는 경찰버스에서 앞으로 철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청사 앞에 철망 대신 폴리탄산에스테르(PC) 창문을 부착한 새 경찰버스 시연회를 열고 '철망없는 경찰버스'(사진)를 선보였다.

새로 도입된 PC 창문은 유리보다 50배, 아크릴보다 30배나 강도가 높아 쇠파이프나 망치 등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철망 대신 PC 창문을 버스에 부착하기로 한 것은 이미지 개선과 과격시위로 인한 버스 파손 방지를 위해서다. /연필뉴스



물고기 수백마리 광주천서 떼죽음

광주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관계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광주천에서 4~7cm 크기의 잉어 50마리가 죽은 채 떠 있

던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날 새벽 20mm 이하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 바닥에 있던 부유물질이 떠올라 물고기의 아가미에 이물질이 끼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독성 물질로 물고기들이 죽었다면 피레미 등 작은 물고기가 떠오르고 잉어 같은 큰 물고기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광고

경매 부동산 매각 광고를 위한 표지판 이미지들